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392

2014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노예제 비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송 목 영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노예제 비판

Criticism of Sla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2014 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송 목 영

dCollection @ chosun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노예제 비판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송 목 영

dCollection @ chosun

송목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금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 ii

1. 서론 ····· 1

2. 본론 ····· 5

가. 세서의 왜곡된 모성 ····· 5

나. 학교 선생의 인간성 말살과 상실 ····· 12

다. 가너의 기만적 온정 ····· 16

라. 노예제가 초래한 정서적 식민상태 ····· 19

마. 환상문학 요소를 통한 치유의 메시지 ····· 28

Ⅲ. 결론 ····· 32

인용문헌 ····· 34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Criticism of Sla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Song Mok-young
Advisor: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oni Morrison's *Beloved* focusing on the destruction of human sensibility which was caused by slavery. I examine the ways in which slavery damages human sensibility while destroying everyday lives of both black and white people such as Sethe, protagonist of the novel, Paul D, Denver, Garner, and the school teacher. Slavery causes Sethe to have a distorted concept of maternity and leads the school teacher, an outright racist, to deny humanity (not only slaves' but his own). Garner, a seemingly generous slaveholder, displays superficial kindness while denying the humanity of slaves. Although slavery has been officially abolished, it has left traumatic memories that still affect African Americans' lives. The novel implies that, instead of trying to forget the unforgettable, one can recover from the traumatic effects of slavery through "re-memory" by remembering or re-visiting a memory. Morrison points out that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reconciliation with white Americans are essential for African Americans who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dark legacy of slavery.

dCollection @ chosun

1. 서론

근대의 노예제는 1607년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619년에는 버지니아에 최초의 노예가 수입되었으며, 남부의 담배, 인디고, 쌀 생산지대의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다. 노예무역은 서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순환 항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17세기 중반부터는 각 지방에서 노예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까지 마련되었다. 이들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은 정착농업에 적합하지 않았고, 백인 계약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유민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원이 되지 못하였다(「노예제」 453). 따라서 백인 계약하인 대신 흑인 노예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1708년과 1750년 사이에 버지니아에 유입된 흑인 노예는 모두 38,418명에 이르렀다(Carter 175-220).

노예무역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백인들은 노예들을 사슬에 묶어 짐승처럼 과적하여 한두 달씩 걸리는 항해를 서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노예들은 상당수 죽거나 병이 들어 미국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버려졌다. 천신만고 끝에 생존한 노예들은 발가벗긴 채 경매에 붙여졌다. 이들은 가축처럼 팔려나갔으며, 실제로 노예 거래는 가축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1808년에 이르러 노예수입이 금지되었지만, 그 후로도 노예제도는 한참동안 잔존하였다. 더 이상 노예를 수입할 수는 없었지만, 노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서부개척과 함께 오히려 증가했다. 수요의 충당을 위해 노예의 "번식"이 중요해졌다. 여성노예는 강제적인 임신과 출산을 통해 더 많은 자식을 낳도록 강요당했으며, 백인 노예주가 성인노예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하거나 성적학대를 가하는 일도 있었다. 노예주와 다른 흑인 노예 등에 의해 임신되고 "번식"된 신생아들은 노예주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었다. 노예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 깊게 백인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흑인과 노예제에 대한 반성조차도 진정성을 갖기란 그토록 어려웠다. 어쩌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흑인들에게 있어서도 노예제가 삶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기에 이들은 노예제를 자신들의 피 속에 박혀 있는 유전자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역사를 만들어 갔을

dCollection @ chosun

것이다.

미국 흑인의 구체적인 역사를 소재로 삼고 있는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 1987)는 노예제도 아래 삶을 바친 흑인들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잊을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산물이다. 이 작품의 모티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856년에 발생한 마거릿 가너(Margaret Garner)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너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856년 1월, 캔터키(Kentucky) 주의 노예였던 가너가 임신 중에 네 명의 자식을 데리고 오하이오(Ohio) 강을 건너 신시내티(Cincinnati)로 도망와서 또 다른 노예출신이자 삼촌인 조 카이트(Joe Kyte)의 집으로 피신하는데, 추격에 나섰던 보안관과 노예 사냥꾼들에게 포위당해 붙잡힐 위기에 처한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노예의 삶을 물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살배기 딸을 칼로 베고 다른 자식들까지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결국 가너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다. 보통 도망노예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하루면 끝나는데 반해, 이 재판은 이례적으로 길어졌다. 가너에 대한 인간적 연민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사람으로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잃어버린 재산으로 취급하여 1850년에 발효된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Act)을 적용하여 무죄 방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가너의 변호사는 그녀를 살인죄로 재판해줄 것을 강력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또한 자신의 행동을 그저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노예의 미친 짓쯤으로 여기고 넘기는 것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결국 가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재판받지 못한 채 노예의 신분으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소설 『빌러비드』에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가 이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모리슨의 생각이 담겨 있다. 작가는 그동안 침묵과 무관심속에 가려지고 무시되었던 집단의 삶,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삶을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고통을 부활시킨다. 흑인노예들의 역사를 전면에 등장시켜 그 동안 금기시되어 온 흑인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적 학대에 관한 고난의 역사를 세서(Sethe)

dCollection @ chosun

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간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했지만 역사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흑인들의 삶과 감정, 도덕적 선택, 공동체 생활을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체험하게 된다”(김지원 39).

『빌러비드』는 백인 중심의 역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워지고 왜곡된 흑인 역사에 대한 문학적 기록이다. 이 소설에서 모리슨은 이름 없는 수천수만의 흑인 노예들의 집단적, 추상적 경험 정도로 이해되어 온 노예 제도와 노예 해방을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로 되살려 냄으로써 그것이 흑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흑인이라는 집단의 역사는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충실하게 재창조되고 있으며, 세서의 딸을 살해한 살인자는 세서가 아닌 백인들이라는 점을 흑인들의 경험을 재현하여 고발하려 한다. 흑인들의 시각에서 과거 그들이 살았던 노예의 삶, 흑인 여인의 삶을 지배한 백인들의 사악함과 현대 세계 속 흑인들의 부조리함을 그려내고 있다. 손영미의 말대로, 인종차별적인 “백인이 보기에는 흑인이 게으르고, 어리석고, 목적의식도 없고, 자신들의 안락함과 우월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사물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지 모른다(230). 백인들은 이미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흑인들에게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흑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백인들이야말로 진정 인간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악을 창조하는 살인자들이며 더 많은 살인을 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문명을 고안하는 법을 합법화하는 존재들이며, 이들의 문화는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들을 경멸하는 편협한 문화에 불과하다.

『빌러비드』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흑인을 도구화하거나 노예를 가축이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는 백인이 어떻게 자신의 지배와 통제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보여준다. 일례로 노예제를 지지하는 당시 백인 지식인층을 대변하는 학교 선생은 흑인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연구하며 과학적으로 그들의 열등성을 증명하려 한다. 실제로도 백인들은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이용하기 쉽도록 학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흑인들의 인간성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고, 흑인들에게는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 버지니아 농장에서는 백인들의 가혹한 억압과 통제에 반발해 노예들이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

dCollection @ chosun

다. 하지만 탈주 노예에 대한 처벌은 끔찍이도 가혹하였는데, 그를 길들이고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가 되는데 적절하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수족을 절단하는 등 어떤 형식의 징벌이라도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미 1669년부터 명문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모건 386).

작가는 흑인 노예들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다. 모리슨은 소설에서 흑인의 복잡한 정체성을 다루었으며,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날카로우면서도 우의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노예제 하에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어떻게 상실되고 왜곡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범인 노예제를 비판한다.

『빌러비드』에서 재기억(rememory)은 과거의 복원과 치유을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작품 속에서 죽은 세서의 딸은 시간이 흐른 후 빌러비드라는 아이로 다시 나타난다. 빌러비드는 세서, 나아가 흑인들의 아픈 과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역사의 상징이다. 모리슨은 재기억이라는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복원한다. 재기억이란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다(김희경 13-15). 재기억은 기억이라는 의미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에도 살아남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이다. 노예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괴되어온 흑인들의 공동체와 종교, 음악, 문화를 개인의 입장에서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기억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Peach 102). 재기억은 해방노예들의 억눌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부서지고 조각난 삶을 되살려 역사화하고 문맥화시키는 과정이다(이승은 441).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노예 개개인의 기억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의 기억, 나아가서는 집단의 기억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마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찢겨나가고 조각난 부분들을 맞추어야 하는 것과 같다.

가해자인 백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흑인들까지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흑인의 역사를 작품을 통해 신랄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모리슨은 노예제의 역사를 묻어두기보다는 직시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회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흑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의 흑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 인종차별주의로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으

dCollection @ chosun

며 그것은 과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모리슨은 이러한 현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의식의 치유와 서로를 보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본 논문은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노예제에 의한 (흑인과 백인 모두의) 인간성 파괴를 예시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차라리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일 노예제라는 과거사를 들추어냄으로써 노예제에서 비롯된 상흔을 진정하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 흑인에게는 상처의 치유를, 백인에게는 잘못된 과오를 진정성 있게 되돌아보기를 원한다. 나아가, 『빌러비드』는 백인이나 흑인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은 노예제의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한다.

모리슨이 『빌러비드』에서 어떻게 인간감성의 파괴를 보여줌으로써 노예제를 비판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 논문의 서론에서 노예제의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려 한다. 이후 본론에서는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통해 노예제가 각 등장인물들의 감성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또한 이렇게 파괴된 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작가는 환상문학적 요소를 통해 치유를 위한 해답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다루어 보려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세서의 왜곡된 모성

노예해방 10년 후인 1873년과 1874년을 배경으로 한 『빌러비드』는 흑인과 백인 모두 회피해 온 노예제도의 역사와 인종차별의 사회적, 심리적 결과로 고

dCollection @ chosun

통받고 있는 흑인들의 내부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정신적 상흔의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Bouson 162). 소설 속에서 모리슨은 폴 디가 대변하는 흑인들이 경험한 공통의 억압된 과거뿐만 아니라 흑인이면서 여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노예제도의 폭력을 세서의 삶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폭력이 현재에도 그들의 삶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의 내적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모리슨은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 극단적인 행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세서의 심경변화와 그녀와 주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흑인이자 여성으로 이중으로 억압받고 있는 세서는 노예제의 폐해가 당시 흑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예제도 하에서 흑인 여성들은 주체적 삶이 아닌, 수동적이고 복종하는 삶을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을 위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임신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흑인 노예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은 형성되었다. 남자노예의 노예는 여자노예였다. 게다가 백인주인에게 여자노예는 노예번식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들은 임신 기간 동안 우대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백인들의 노예증식을 위한 계산된 우대였다. 이들에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노예의 자녀들은 백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므로 노동에 활용할 만한 나이가 되면 상품가치에 따라 다른 소유주에게 매매되어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여자노예들에게 다시 잔혹한 노동이 주어졌다. 아이를 가진 여자노예들은 일하러 나갔다가 아이 젖을 먹일 시간에 집으로 들어와 젖을 먹이고 다시 들에 나가 밤이 될 때까지 일해야 했다. 40이 넘으면 여자노예들은 출산이 끝나기 때문에 젊은 여자노예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보태 노동량은 더욱 늘어났다. 게다가 남자노예들과는 달리 주인의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때때로 그런 횡포에 저항이라도 하게 되면 불복종의 대가로 채찍질이 가해졌고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비인간적인 제도 하에서 흑인 여성들의 모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감성 왜곡과 행위의 부조리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모리슨은 세서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한 여성의 모성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환경

dCollection @ chosun

을 제공했던 노예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소설 속에서 세서는 켄터키(Kentucky)주의 농장인 스위트홈(Sweet Home)에서 관대하고 자부심 넘치는 백인 농장주인 가너(Garner)의 허락 하에 듬직한 노예 청년 핼리(Halle)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너의 사후, 농장을 이어받은 학교 선생(School Teacher)의 잔인성에 탈출을 계획하게 된다. 가너가 죽고 나서, 세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학교 선생의 수업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백인들과 그들의 제도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픈 세서의 욕망을 더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 천천히. 내가 그만 돌아서서 모슬린을 가지러 가려는 순간, 또다시 그의 말소리가 들렸어. “아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의 인간적인 특징은 왼쪽에, 동물적인 특징은 오른쪽에 적으라고 했잖니. 줄을 맞추는 걸 잊지 마라.” 나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 고개를 돌려 길을 보지도 않았지. 무조건 발을 들어 뒤로 계속 물러났을 뿐. 그러다가 나무에 쾅 부딪쳐 머릿가죽이 따끔거렸어.[1)]

> Slow, I was about to turn around and keep on my way to where the muslin was, when I heard him say, "No, no. That's not the way. I told you to put her human characteristics on the left; her animal ones on the right. And don't forget to line them up." I commenced to walk backward, didn't even look behind me to find out where I was headed. I just kept lifting my feet and pushing back. When I bumped up against a tree my scalp was prickly. (228)

이 장면에서 세서는 스위트홈에서의 생활이 일견 인자한 백인주인 가너 아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1) 본 논문에서 *Beloved*의 우리말 번역은 최인자 역 『빌러비드』(문학동네, 2014)를 따른다.

dCollection @ chosun

노예제도 하에서 흑인이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그들의 인간성은 잔인하게 부인될 수밖에 없다. 가너 주인의 스위트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와 인간성을 보장받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서에게 이러한 수업장면은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학교 선생의 수업에서 자신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로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세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나무에 부딪혀 다치면서도 정신없이 빠져나온다.

세서가 스위트홈을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자신의 가장 사랑스런 존재가 학교 선생의 수업장면에서 목격한 것처럼 백인들에게 짐승취급당하는 삶은 부모된 입장에서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들만큼은 백인들로부터 잔인하게 취급받으며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세서의 심리는 이후 그녀의 독백 부분에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 자식들은 그녀의 보배였다. 백인들이 그녀 자신은 더럽혀도 괜찮았다. 하지만 그녀의 보배만큼은, 마법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보배만큼은, 그녀의 순결한 분신만큼은 그렇게 되게 할 수 없었다. [...] 그녀 자신은 도살장 마당에서 몸을 팔지언정, 딸에게는 절대 안 될 일이었다.
>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딸의 특징을 공책의 동물적인 특징 목록에 적을 수는 없었다. 안 될 말이지, 오, 안 되고말고.
>
> The best thing she was, was her children. Whites might dirty her all right, but not her best thing, her beautiful, magical best thing—the part of her that was clean. [...] She might have to work the slaughterhouse yard, but not her daughter. And no one, nobody on this earth, would list her daughter's characteristics on the animal side of the paper. No. Oh no. (295-96)

dCollection @ chosun

자신은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자식들에게까지 그러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으며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세서의 강한 집념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노예제도 하에서는 백인 지배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키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노예제라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모성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회제도 하에서 억눌려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못한 모성은 이후에 결국 세서의 자식 살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세서는 어느 날, 도망쳐버린 재산인 세서 자신과 그녀의 자식들을 되찾기 위해 124번지로 접근하는 학교 선생과 보안관을 발견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백인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임에 분명한, '자식들에게 주고픈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서슴없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버린다. 백인들의 손길이 영원히 닿지 않는 곳은 이 세상 너머일 수밖에 없다고 믿은 그녀는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음으로써 노예제의 마수를 영영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세서는 건강한 정신과 완전한 자아형성을 이룰 수 없었고,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도 이처럼 기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모리슨은 이런 기형적인 모성애가 결국 노예제에서 출발한다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사랑도 없이 자랐고 그에 따른 사랑에 대한 결핍감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되어 살인에까지 이른다. 모리슨은 노예들의 모성애가 결국 비틀어진 형태로 나타나, 자식을 완전한 개체로 볼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다. 다음 장면은 그녀가 아이를 빼앗기려는 순간 자신의 모성을 어떻게 집착으로 변질시켜버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혹시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절규뿐이었다. 간단했다. 그녀는 무작정 달려갔다. 자신이 만든 생명들, 귀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의 일부들을 빠짐없이 끌어모아서, 이 세상의 장막 너머로 멀리,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저편으로 들고, 밀고, 끌고 갔던 것이다. 저 너머로.

dCollection @ chosun

이 곳 바깥,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And if she thought anything, it was No. No. Nono. Nonono. Simple. She just flew. Collected every bit of life she had made, all the parts of her that were precious and fine and beautiful, and carried, pushed, dragged them through the veil, out away, over there where no one could hurt them. Over there. Outside this place, where they would be safe. (192)

세서는 자신의 끔찍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만 자신의 아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린다. 세서 입장에서 백인들이 그녀의 아이를 절대 해칠 수 없는 곳은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백인들에게 빼앗긴 다른 것들보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상징하는 모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더 집착한다. 그녀는 탈출 전에 학교 선생의 조카들에 의해 강제로 젖을 빨리게 되는데 이것은 세서에게 있어 노예들에게 자행되었던 그 어떤 비인간적인 처우보다도 더욱 충격적이었다. 모리슨은 달링(Marsha Darling)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역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박순정, 「소유적」 25 재인용). 작품 속에서 세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자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모성의 상징적 매개체인 젖을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모욕감은 없었다. 폴 디(Paul D)는 여성을 매질하여 흉터를 남긴 백인들의 잔혹성에 분노하는 반면, 세서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아이들에게 줄 젖을 빼앗긴 사실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세서 자신이 진한 사랑이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은 그녀의 모성에는 사실 소유욕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랑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는 노예제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지도 못한 사랑이다. "소유욕은 자아실현에 이르는 성장을 가로막는 편견이고 오만이어서, 주체와 객체의 자아를 모두 파괴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박순정, 「소유적」 22).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며, 둘

dCollection @ chosun

째로, 객체의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어쩌면 세서가 이런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노예제의 결과일 것이다.

세서는 노예제도 하에서 성숙한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는 결국 그녀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부족한 사랑을 타자에게서 찾게 했다. 그 결과, 자식을 향한 세서의 사랑은 소유욕에 의한 집착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세서의 비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우려는 작품에서 폴 디가 세서를 떠나는 장면의 대화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다.

> 여기 이 세서는 보통 여자들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보통 여자들처럼 아기 옷에 대해 떠들지만, 그 말에 담긴 뜻은 뼈를 쪼개고도 남을 정도였다. 여기 이 세서는 톱을 든 채 안전을 이야기하는 여자였다. 여기 이 새로운 세서는 세상이 어디까지이고 자기가 어디부터인지를 모르는 여자였다. 갑자기 폴 디는 스탬프 페이드가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던 게 뭔지 보였다. 세서가 저지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다.
> “당신의 사랑은 너무 짙어.”

> This here Sethe talked about love like any other woman; talked about baby clothes like any other woman, but what she meant could cleave the bone. This here Sethe talked about safety with a handsaw. This here new Sethe didn't know where the world stopped and she began. Suddenly he saw what Stamp Paid wanted him to see: more important than what Sethe had done was what she claimed. It scared him.
> “Your love is too thick.” (193)

dCollection @ chosun

세서는 딸을 살해한 자신의 행위 그 자체보다 '왜 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당위성만을 주장한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딸을 노예제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살해 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살인이란 행위, 더군다나 가족의 살해라는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될 뿐더러, 자식이지만 이미 자기 자신과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자식의 생명에 대해 부모라고 해도 자의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폴 디는 애초에 스탬프 페이드(Stamp Paid)로부터 세서가 저지른 살인행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의심하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서는 폴 디와 대면하는 위 장면에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짙은 사랑에 의한 것이었고, 얕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극단성에 대해 크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서의 이러한 고백은 폴 디를 떠나게 만든다. 결국 세서의 자식 살해는 노예제로 인한 모성 왜곡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서는 빌러비드가 나타난 이후 폴 디마저 떠나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다. 자신을 죽인 엄마를 향한 딸아이의 복수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듯이 세서는 자신에 대한 빌러비드의 애착에 몸을 내맡긴다. 빌러비드가 죽은 딸이 육신의 형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부터 세서는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한다. 빌러비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녀는 과거에 다 주지 못한 빌러비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감정에 점점 침식되어가고, 결국 작품 후반부에 가서는 딸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조차 잊고 만다. 그 결과 빌러비드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비대해져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날이 갈수록 세서는 야위어 간다. 결국 빌러비드는 노예제에 빼앗겨버린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받지 못한 모성의 왜곡으로 인한 집착이 만들어 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나. 학교 선생의 인간성 말살과 상실

노예제에 찬성한 사람들은 인간사회의 문명을 위해서 노예가 필요하며 노예는

dCollection @ chosun

태생적으로 운명지어 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의 계급만을 주장하며 그들의 인간성 말살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빌러비드』에 묘사된 미국 노예제에서는 흑인 노예에게는 아예 인간의 지위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서가 스위트 홈을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운 동기가 된다. 작품 속에 드러난 노예제 비판은 폴 디나 덴버(Denver), 가너, 학교 선생 등 다른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와 행동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노예제도의 가해자이자 가장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백인들일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백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흑인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이들도 있지만, 노예제에 찬성하면서 흑인들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유재산으로 보거나 가축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백인의 전형적인 예로는 학교 선생과 그의 조카들, 그리고 가너 사망 이후 농장을 관리하러 온 백인들이 있다. 이들이 흑인 노예들에 대해 갖는 생각을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탈출에 실패한 폴 디가 잡혀온 후 백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장면이다.

> 족쇄를 찬 채, 꿀벌이 사랑하는 향기로운 것들 사이를 걸어가며 폴 디는 백인 남자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난생처음 자신의 값어치를 알게 된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알았다. 아니, 안다고 믿었다. 어엿한 일꾼, 농장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하지만 이제야 그는 자신의 값어치를, 다시 말해 몸값을 알게 된다. 그의 몸무게, 그의 힘, 그의 심장, 그의 머리, 그의 성기 그리고 그의 미래를 달러로 매긴 가치를. [...] '여기 이 놈'에게서 나온 돈으로 열둘이나 열다섯 살쯤 되는 어린놈을 둘 살 수 있으리라. 애를 낳을 수 있는 노예 하나에다 그년의 새끼 셋, 그리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뱃속에 든 새끼까지 있으니 어쩌면 그와 그의 조카에게 일곱 명의 노예가 생기는 셈이고, 스위트홈도 이 정도 골치를 썩고 고생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 Shackled, walking through the perfumed things honeybees

dCollection @ chosun

> love, Paul D hears the men talking and for the first time learns his worth. He has always known, or believed he did, his value—as a hand, a laborer who could make profit on a farm—but now he discovers his worth, which is to say he learns his price. The dollar value of his weight, his strength, his heart, his brain, his penis, and his future. [...] With the money from "this here one" he could get two young ones, twelve or fifteen years old. And maybe with the breeding one, her three pickaninnies and whatever the foal might be, he and his nephews would have seven niggers and Sweet Home would be worth the trouble it was causing him. (267)

스위트 홈의 새 주인이 된 학교 선생은 흑인을 사물화하고 흑인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백인 지식인의 예를 보여준다. 그의 인종차별주의는 양심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몸에 배인 사유체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학교 선생은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해 자신과 다른 인종을 분류하고 값을 매기는 참담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노예들이 도망친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정도일지, 그리고 그러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예를 팔아넘겨야 하며, 부족해진 농장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어린 노예들을 얼마의 가격에 사올지를 고민한다.

노예를 가축이나 야만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학교 선생의 모습은 도망친 세서를 추적한 끝에 124번지에 이르러 그녀의 자식살해를 목격하는 장면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 이제는 되찾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특히 학교 선생에게는. 멀쩡히 살아 있기를 바랐던, 그래서 켄터키로 데려가 스위트 홈에 절실히 필요한 일을 시킬 때까지 제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랐던 애새끼 셋(계집이 도망치는 도중에 하나를 더 낳았으니까 이제는 넷이었다)은 이제 없었다. [...] 그 여자 노예는 학교 선

dCollection @ chosun

생이 잉크도 잘 만들고, 수프 끓이는 솜씨도 기가 막히고, 옷깃도 마음에 꼭 들게 다릴 뿐만 아니라 최소한 십 년은 더 새끼를 칠 수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한 계집이었다. [...] 하느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주신 짐승들을 지나치게 매질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얼마나 골치 아프고 손실이 큰지 보란 말이다. 결국 몽땅 잃었다.

Right off it was clear, to schoolteacher especially, that there was nothing there to claim. The three (now four—because she'd had the one coming when she cut) pickaninnies they had hoped were alive and well enough to take back to Kentucky, take back and raise properly to do the work Sweet Home desperately needed, were not. [...] the woman school-teacher bragged about, the one he said made fine ink, damn good soup, pressed his collars the way he liked besides having at least ten breeding years left. [...] see what happened when you overbeat creatures God had given you the responsibility of—the trouble it was, and the loss. The whole lot was lost now. (175-76)

학교 선생은 노예들을 신이 맡긴 물건들이라 여긴다. 신이 맡긴 물건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소유물'을 소실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노예제 하에서 백인이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를 기만에 빠뜨려 자신들의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백인들 역시 노예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노예제는 이처럼 흑인들이나 백인들 모두에게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 신을 끌어들여 스스로를 더욱 기만하고, 피해자들인 흑인들을 학대하는 백인들에 대해 세서는 마지막 남은 자유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도 인간임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이렇듯 백인들의 철저한 통제 하에 제도적으로 인간성을 부정당했던 흑인노예들의 삶을 박순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인이 점유하고 있는 질서에서 흑인은 백인의 자만심을 충족시켜주는 타자일 뿐이고 부를 증가시키고 재생산하는 ‘일하는 짐승’으로 정형화된다. 이로 인해 흑인은 개별적인 ‘내적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노예라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축소되고 왜곡된다"(「토니」 91). 노예제 하에서의 백인들은 흑인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백인들 스스로도 인간성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타인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대우하지 않는 일은 스스로를 인간의 격에서 떨어뜨리고 마치 약한 동물을 먹잇감 삼는 것을 당연시하는 맹수처럼 변질시킨다. 이로써 노예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간성을 마비시킨다.

다. 가너의 기만적 온정

그렇다면 우호적인 백인들이 노예들을 바라보던 시각은 어떠했을까? 『빌러비드』의 농장주 가너는 노예들에게 친절과 애정을 베푼다. 스위트홈의 노예들은 모두 그러한 가너를 감사히 여기며 그에게 모든 충성을 바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너의 친절이 흑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위치를 느끼게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너는 흑인 노예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약간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노예들 스스로 충성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렇지만 과연 흑인노예들에게 백인과 같은 인간성을 인정한 것일까?

가너는 세서와 핼리의 결혼을 허락하였지만 그저 세서가 핼리의 숙소로 옮기도록 한 것이 전부였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낄 만한 의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서는 핼리와의 결혼을 허락받았을 때 드레스에 대한 걱정을 한다. 흑인 노예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가너 부부는 어린 소녀 세서에게 너는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라는 대답으로 그들의 노예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고 만다. 그들의 친절은 그들 성품의 온화한 모습일 뿐이었고 그들 역시 흑인 노예는 백인들과는 인간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깊이 박혀있다. 이처

dCollection @ chosun

럼 스위트홈 옛 주인이었던 가너 역시 흑인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제니, 이분들게 말 좀 해줘. 우리 농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지내본 적 있어?”
“아뇨, 주인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스위트홈에 얼마나 있었지?”
“십 년쯤요.”
“배가 고팠던 적 있나?”
“아뇨, 주인님.”
“추웠던 적은?”
“없습니다, 주인님.”
“누가 건드린 적 있어?”
“아뇨, 주인님.”
“핼리에게 네 몸값을 치르도록 허락했지, 안 그래?”
“맞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해주셨죠.”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들을 가졌고 난 만신창이가 되었죠. 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당신은 내 몸값을 치러야 한다며 내 아들을 다른 데 빌려주겠죠.

"Tell em, Jenny. You live any better on any place before mine?"
"No, sir," she said. "No place."
"How long was you at Sweet Home?"
"Ten year, I believe."
"Ever go hungry?"
"No, sir."
"Cold?"
"No, sir."

dCollection @ chosun

"Anybody lay a hand on you?"
"No, sir."
"Did I let Halle buy you or not?"
"Yes, sir, you did," she said, thinking, But you got my boy and I'm all broke down. You be renting him out to pay for me way after I'm gone to Glory. (171-72)

베이비 석스와 가너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가너가 비록 친절하게 흑인 노예들을 대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노예에 대한 선행일 뿐 흑인을 진정으로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노예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여 자신들의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었다. 때문에, 가너와 같은 백인의 피상적인 친절은 기만적인 것으로 이를 섣불리 미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빌러비드』에서는 자유의 몸이 된 베이비 석스가 가너와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고 세서가 자신에게 관대하고 친절했던 백인들에게 갖는 태도의 변화에서 흑인 노예들이 이러한 백인들에게 가졌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리슨은 흑인들에게 달콤하게 포장된 스위트홈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 때는,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녀도 순했고 남을 잘 믿었다. 가너 부인을 믿었고 부인의 남편도 믿었다. 속치마 안에 귀고리를 묶어서 도망쳤지만, 귀에 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백인들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해주는 귀고리였다. 학교 선생이 한 명 있으면 에이미 같은 백인도 한 명 있을 거라고. 선생의 조카들 같은 백인이 한 명 있으면 가너 씨나 보드윈 씨나 아니면 점잖게 팔꿈치를 붙잡아주고 젖을 먹일 때 고개를 돌려준 보안관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명 있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이후 그녀는 베이비 석스의 유언을 한 글자도 남김없이 다 믿게 되었고, 특별한 백인과 행운에 대한 기억들은 몽땅 묻어버렸다.

dCollection @ chosun

> Once, long ago, she was soft, trusting. She trusted Mrs. Garner and her husband too. She knotted the earrings into her underskirt to take along, not so much to wear but to hold.
>
> Earrings that made her believe she could discriminate among them. That for every school-teacher there would be an Amy; that for every pupil there was a Garner, or Bodwin, or even a sheriff, whose touch at her elbow was gentle and who looked away when she nursed. But she had come to believe every one of Baby Suggs' last words and buried all recollection of them and luck. (222)

위 장면은 악한 백인들이 있는 반면 선의를 베푸는 백인들도 있다고 믿어왔던 세서의 믿음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그들이 보여준 선의가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선량한 백인 아래서 흑인 노예는 주인의 온정에 자신의 인간성을 망각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지고 만 것이다. 그들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떠올릴 여지조차 없다. 오히려 악랄한 백인들의 학대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눈이 뜨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라. 노예제가 초래한 정서적 식민상태

자신이 경험한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슴속의 담뱃갑 속에 가둬둔 폴 디, 노예로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공동체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세서, 언젠가 엄마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덴버, 세서의 살해된 딸이면서 동시에 미들 패시지(Middle

dCollection @ chosun

Passage)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체화한 인물 빌러비드, 이 모든 주요 인물들은 억압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폴 디는 스위트 홈의 주인이 바뀐 이후, 가너 주인 밑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었던 자유의지와 남성성이 모두 한꺼번에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는 탈출 이후에 붙잡혀 조지아 주(Georgia)의 앨프리드(Alfred) 수용소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표현도 끊임없이 경계하거나 억압하게 된다.

> 앨프리드 수용소 시절 이후로 그는 머리의 대부분을 닫아버리고, 걷고 먹고 잠자고 노래 부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작동시켰다. [...] 그 궤짝은 스위트홈도 하지 못한 일, 노새처럼 일하고 개처럼 사는 삶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가 제정신을 잃지 않도록 아예 미쳐버리게 만든 것이다.

> After Alfred he had shut down a generous portion of his head, operating on the part that helped him walk, eat, sleep, sing. [...] The box had done what Sweet Home had not, what working like an ass and living like a dog had not: drove him crazy so he would not lose his mind. (49)

폴 디가 자신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성을 외치는 뇌와 인간성을 강렬히 느끼는 심장을 누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한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신이 부여한, 노예제라는 비인간적인 제도 아래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폴 디는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 세서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꼭꼭 눌러 담아 가슴 속에 파묻은 채 좀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dCollection @ chosun

나머지 이야기는 원래의 자리, 그의 가슴속, 붉은 심장이 있었던 자리에 묻은 양철 담뱃갑 속에 그대로 둘 것이다. 담뱃갑의 뚜껑은 녹슬어서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다정하고 강인한 여인 앞에서 그 뚜껑을 열지는 않으리라. 세서가 그 안에 담긴 것의 냄새라도 맡는다면, 그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일 테니까. 게다가 그의 가슴속에 미스터의 볏처럼 빛나는 붉은 심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녀도 상처받을지 모른다.

He would keep the rest where it belonged: in that tobacco tin buried in his chest where a red heart used to be. Its lid rusted shut. He would not pry it loose now in front of his sweet sturdy woman, for if she got a whiff of the contents it would shame him. And it would hurt her to know that there was no red heart bright as Mister's comb beating in him. (86)

이처럼 폴 디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유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모습은 본문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폴 디의 행동은 노예제에서 해방되고 유랑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작가는 잘못된 제도 하에서 꾸준히 학습을 받아왔던 흑인들의 수동적인 의식과 행동양식을 경계하고 있다. “식민 사회에서 강압적으로 흑인을 ‘인종적인 대상’으로 고정시키면, 흑인의 자아는 붕괴되어 무의식중에 스스로가 동물이나 물건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박순정, 「토니」 95).

백인들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흑인들은 지배자들의 강압과 거듭되는 인종차별적 담론의 주입에 의해 스스로가 사람이 아닌 사물임을 인정해버리게 되는데, 이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게 하고 백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당하는 것마저 하나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이렇듯 백인들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자신들의 감정과 감각을 마비시킨 채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흑인들의 모습은 인종차별주의가 강요한 인

dCollection @ chosun

간성 억압의 결과이다.

오랫동안 폴 디는 가너가 어엿한 사내로 키워놓은 노예들을 학교 선생이 어린아이로 망쳐놓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달아났던 것이다. 담뱃갑 속 내용물에 시달리는 지금, 폴 디는 학교 선생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실제로 달라진 게 있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가너는 공공연히 그들을 사내라고 부르고 선포했다. 하지만 오직 스위트홈에서만, 그리고 그의 허락하에서만 그랬다. [...] 그들은 멋진 거짓말 속에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핼리와 베이비 석스가 스위트홈으로 오기 전에 겪은 삶을 단순히 불운이라고 치부했다. 식소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무시하거나 웃어넘겼다.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확신했다. 조지아 주 앨프리드 수용소 같은 문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곳은 세상의 겉모습만을 너무나 사랑하며, 이꼴 저꼴 다 참아내며, 쳐다볼 권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떠 있는 그곳에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곳이었다.

For years Paul D believed schoolteacher broke into children what Garner had raised into men. And it was that that made them run off. Now, plagued by the contents of his tobacco tin, he wondered how much difference there really was between before schoolteacher and after. Garner called and announced them men—but only on Sweet Home, and by his leave. [...] Because they had been isolated in a wonderful lie, dismissing Halle's and Baby Suggs' life before Sweet Home as bad luck. Ignorant of or amused by Sixo's dark stories. Protected and convinced they were special. Never suspecting the problem of Alfred, Georgia; being so in love with the look of the world, putting up with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to stay alive in a place where a moon he had no right to was nevertheless there.

dCollection @ chosun

(259-60)

스위트 홈에서 탈출한 후 폴 디는 가너가 심어준 남성성이 허구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스위트 홈에서 생활하면서 농장주인 가너 씨가 주입한 대로 남자다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자신의 행동이 가너 씨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행동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가너가 그들을 남자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남성성은 오직 스위트 홈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폴 디는 그것을 백인들이 흑인들 속에서 심어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예제 하에서 스스로 비판의식을 갖지 못한 채 주인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 수 밖에 없었던 삶의 결과이다.

덴버는 세서나 폴 디와는 달리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삶 또한 노예제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 또한 124번지에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시킨 채 어머니 세서가 자신을 언제 살해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언니 유령의 분노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덴버가 친구 넬슨 로드(Nelson Lord)로부터 어머니 세서의 살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귀머거리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살해 사건과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억압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최재구, 172).

심지어는 노예해방으로 자유를 되찾은 후까지도 『빌러비드』의 인물들에게 이러한 정서적인 식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현실이었다며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참혹해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노예 시절의 고통이 여전히 그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러비드』의 인물들은 육체적, 제도적인 해방 이후까지도 심리적으로 황폐하고 비참한, 스스로를 속박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리슨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를 비판함에 있어 달콤하게 포장된 단면만을 보며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 “백인들이 절 감옥에서 빼줬어요.” 한번은 세서가 베이비 석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 “널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그들이야.” 베이비 석스가 대답했다.
> “백인들은 어머니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주었잖아요.”

dCollection @ chosun

“내 아들 등에 업혀온 거지.”
“백인들이 어머니에게 이 집을 줬어요.”
“나한테 뭘 거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백인들 덕분에 제가 일자리를 얻었는걸요.”
“그자는 요리사를 얻었잖니, 얘야.”
“오, 몇몇 백인들은 우리를 정당하게 대해줘요.”
“그때마다 항상 놀라잖니, 안 그래?”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덤비지 마라. 태초부터 살았던 백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 작자들이 빠뜨려 죽인 우리 흑인들이 더 많을 게다. 그러니 네 칼을 내려놔. 이건 싸움이 아니야. 참패지.”
[...]
“내가 너한테 캐롤라이나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해줬단 말이냐? 네 아빠에 대해서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절름거리게 됐는지, 네 엄마의 등은 물론이고 발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단 게냐?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런.”
하지만 할머니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없지.”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점을 명심하고, 마당 밖으로 걸어나가렴. 어서 가거라.”

"They got me out of jail," Sethe once told Baby Suggs.
"They also put you in it," she answered.
"They drove you 'cross the river."
"On my son's back."
"They gave you this house."
"Nobody gave me nothing."
"I got a job from them."

dCollection @ chosun

"He got a cook from them, girl."

"Oh, some of them do all right by us."

"And every time it's a surprise, ain't it?"

"You didn't used to talk this way."

"Don't box with me. There's more of us they drowned than there is all of them ever lived from the start of time? Lay down your sword. This ain't a battle; it's a rout."

[...]

"You mean I never told you nothing about Carolina? About your daddy? You don't remember nothing about how come I walk the way I do and about your mother's feet, not to speak of her back? I never told you all that? Is that why you can't walk down the steps? My Jesus my."

But you said there was no defense.

"There ain't."

Then what do I do?

"Know it, and go on out the yard. Go on." (287-88)

세서와 베이비 석스간의 대화에서 함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세서는 백인들이 감옥에서 자신을 빼내 주었고 강 건너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일자리도 주는 등 친절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잠깐 눈이 멀어 그 이면에 숨겨진 백인들의 의도와 노예제의 추악함을 잊고 있었다. 이처럼 수동성과 비판의식의 결여를 바로잡고, 완전히 아물기 힘든 노예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성찰을 통해 과거의 생채기를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노예제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

작가는 과거의 불편한 진실로부터 소심하게 회피만 하는 행동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비판의식의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 모리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몹시 끔찍해서 깊은 상처가 될지라도, 이를 잊어버

dCollection @ chosun

려서는 안 되며, 기억하고 되짚어보며,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독자에게 요구한다. 소설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도 인정하고 직면해야 하며, 서로 상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일깨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피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백인들과의 화합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고 모리슨은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수동성, 폐쇄성에서 벗어나 상처를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와 소통하며, 이를 기반으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세서가 124번지에 도착한 이후 28일간 공동체 생활을 겪으며 깨닫게 된 것처럼,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해방된 자기 자신을 당당히 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124번지의 '클리어링 숲(Clearing)'에서 베이비 석스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흑인들이 과거의 상처에 직면해 어떻게 서로를 다독이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 김길수에 따르면,『빌러비드』에서의 '클리어링(Clearing) 숲'은 모리슨의 "사랑과 공존의 메시지를 구현하는 공간"이다(「탈식민주의적」 118). 이 곳에서 베이비 석스는 그동안 백인들에게 억압받아 왔던 흑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설교를 통해 전파하며, 노래와 춤을 통해 억눌려왔던 감정을 표출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녀는 백인들의 증오와 경멸보다도 흑인들 스스로 백인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느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녀는 설교를 통해 노예제도에서 비롯된 자기 부정, 자기 비하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길수, 「차이의」 182-83).

덴버는 폴 디가 124번지를 떠난 이후 점점 심해지는 빌러비드와 세서의 고립과 서로에 대한 집착으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녀는 어렸을 적 레이디 존스(Lady Jones)의 수업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선 이후로는—딱 한 번, 폴 디와 카니발을 보기 위해 나섰던 것이 전부였다—오랫동안 벗어나본 적이 없는 울타리 바깥세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을 디딘다.

dCollection @ chosun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했지만, 덴버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할 사람도, 집에 와볼 사람도 없어지고, 심지어 덴버까지 없어질 형편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건사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었다. 만약 자기 할머니 집을 나서던 넬슨 로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은 영영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덴버는 파이 반쪽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러 그 집에 막 들어가던 참이었다. 넬슨 로드는 그저 웃으면서 “네 몸부터 잘 챙겨, 덴버”라고 말한 게 전부였지만 덴버에게는 마치 그 말을 위해 언어가 생겨난 듯했다. 지난번 그가 했던 말은 그녀의 귀를 막아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Somebody had to be saved, but unless Denver got work, there would be no one to save, no one to come home to, and no Denver either. It was a new thought, having a self to look out for and preserve. And it might not have occurred to her if she hadn't met Nelson Lord leaving his grandmother's house as Denver entered it to pay a thank you for half a pie. All he did was smile and say, "Take care of yourself, Denver," but she heard it as though it were what language was made for. The last time he spoke to her his words blocked up her ears. Now they opened her mind. (297)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차린 엘라를 비롯한 이웃 흑인들은 124번지로 쿠키나 빵 등의 먹거리를 가져다 놓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학교를 떠나게 한 이유이기도 했던 넬슨 로드와도 화해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흑인들이 잘못된 제도와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고립되기보다는 백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리슨은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지배자의 횡포와 무자비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질책하거나, 백인은 무조건 극악무도하고 흑인은

dCollection @ chosun

언제나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일관하지는 않는다"(전경희 73).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처럼 흑인들도 백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단순히 흑과 백, 또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어느 한 쪽만의 정의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

노예제가 남긴 상처를, 과거의 기억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행동처럼 그 과거에 의해 적대감을 갖거나 고립되려 하는 행동 또한 지양해야 한다. 작품 후반부에서 세서는 자신의 딸을 도우려고 접근하는 보드윈을 보며, 자신의 딸을 잡으러 온 백인으로 착각하고 죽이려 들지만 엘라와 다른 여인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그들은 이후에 만약 세서를 막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상상하며 몸서리친다. "미 흑인에게 있어서 미국은 억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존재가 부단히 확인되고 환기되어야 하는 공존의 대상이다. 백인 미국인은 흑인의 오염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의 한 부분이다. 이 괴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윤리이다. 모리슨은 계층적 구조를 발생시키는 폭력적인 이분법의 사유체계에 저항하며 두 문화의 차이와 공존을 인정한다"(최재구 13).

마. 환상문학 요소를 통한 치유의 메시지

전용갑은 "환상문학의 공간은 '독자가 거주하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현실적인 세계여야 하며, '현실성의 효과'를 통해 이성과 논리에 대한 인식론적 회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501). 모리슨은 현실의 노예제가 남긴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 딸 빌러비드를 만나게 된 이후 세서의 삶을 심층적으로 묘사한다. 그녀가 이처럼 현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비현실적인 환상 요소를 삽입한 것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서가 처한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는 흑인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임을 부르짖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리슨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제3의 질서 속에서 세서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모리슨은 빌러비드라는 존재를 통해 독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빌러비드는 세서의 죽은 딸이기도 하지만 백인들에 의

dCollection @ chosun

해 희생당한 아프리카 선조들의 무수한 혼이기도 하다. 작가는 빌러비드를 통해 세서에 의해 죽어버린 딸의 목소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과거 노예선에서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흑인들의 억울함까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빌러비드』에서는 이처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잊혀져간 흑인들의 경험을 환상문학적 요소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모리슨은 작품 속에서 "무시간적이고 파편적인 독백과 코러스, 노래의 후렴구와 같은 반복적 요소들의 활용, 모자이크식 사건 배열 등을 통해 내용의 환상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노예제도 안에서 흑인들이 겪어야 했던 거의 초현실적인 고통과 부조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손영미 231). 『빌러비드』가 지닌 환상성은 너무나도 슬프고 잔인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완충시켜 독자들에게 전달해준다. 병리적 현상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모리슨의 환상문학의 원용은 노예제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모리슨은 너무 끔찍한 나머지 대면할 수조차 없는 과거를 마주할 매개체로 빌러비드라는 유령 같은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노예 제도의 계속되는 상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있다.

『빌러비드』에는 재갈을 물고 무력해져 있는 폴 디를 보고 있는 수탉의 비웃는 듯하는 시선, 폴 디가 담뱃갑 속에 보관하고 있는 붉은 심장 등 환상적인 요소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젊은 남자, 물속에서 머리카락과 살점이 붙은 채 튀어나온 흑인 소녀 등 원혼들이 여기저기 등장한다. 소설은 원한에 사무친 혼들을 조용히 달래 이제는 안식의 장소로 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살아남은 미국인들에게 던지고 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살풀이굿처럼 죽어버린 흑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며 저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역사적 모순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이명호 143 재인용). 세서의 지독한 자식사랑에 대한 변명도, 백인들로부터 당했던 비인간적인 학대도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이다. 작가는 1856년 신시내티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국가관에 걸맞지 않은 오점을 남긴 미국 역

dCollection @ chosun

사를 바로잡아보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아닌, 노예로서의 삶을 대물림하기 싫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겨온 자식을 살해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소설 속에 가져와 노예제도의 잔혹함을 고발한다. 그러면서도 주인공 세서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미화하지 않는다.

『빌러비드』는 노예제가 만들어낸 비인간성이 사랑마저도 왜곡시키고 피해자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환상문학의 요소를 활용해 독자들에게 훌륭하게 전달한다. 세서의 자식살해는 124번지의 악의와 원한에 사무친 아기유령을 불러내고, 세서의 가족을 한동안 괴롭히며, 그녀의 두 아들들인 하워드(Howard)와 뷰글러(Buglar)를 떠나게 한다. 또한 모리슨은 세서의 죽은 딸을 되살려내어 현실의 한 부분에 자리 잡게 한다. 죽은 딸의 현신(現身)인 빌러비드는 생전에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세서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세서 또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빌러비드를 돌보고 먹이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피폐해져 간다.

세서는 노예제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남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스위트홈에서도, 그리고 백인들을 피해 정착한 124번지 집에서도 그녀는 매번 노예제가 남긴 상처를 외면하고 도망쳐보려 애쓰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는 그녀 자신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녀는 스위트 홈 시절 가녀의 달콤한 말과 핼리와의 결혼에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을 기만해 보지만 학교 선생과 울타리 밖의 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124번지에 정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인들의 족쇄와 법률을 피해보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며 애써 정당화시키고 끔찍한 과거를 잊어보려 하지만 아기유령과 빌러비드의 존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러나 엘라(Ella)를 비롯한 마을의 다른 흑인들과 딸 덴버의 도움을 받으면서 빌러비드는 사라지고 세서는 건강을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다.

과거의 청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끔찍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그러한 행위가 변명과 울분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리슨은 죽은 자의 원혼을 불러내어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학대받고 원한에 가득 찬 흑인들이지만 그들 또한 내부에서 서로에게 가해지는 악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빌러비드는 세서와 그녀 가족의

dCollection @ chosun

삶에 큰 파탄을 가져온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변화와 재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박귀숙 25). 폴 디와 세서는 빌러비드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그동안 회피했던 질문들에 직면하고 억압되었던 기억들을 회복한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그들은 결국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빌러비드와의 대면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124번지를 향해 접근하는 보드윈(Edward Bodwin)의 마차를 보며 얼음송곳을 들고 몸을 날리는 세서의 모습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만을 찾던 전반부 세서의 모습, 즉 딸의 목에 칼을 들이대던 모습과 대비된다. 그리고 엘라에 의해 제지되는 모습을 통해 백인들에 대한 분노나 복수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또한 알려주고 있다. 결국 작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하며 여기에는 혼자의 힘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진범은 엘라 일행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빌러비드가 사라지는 장면은 원한을 품은 혼이 생전에 겪은 고통의 경험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편안한 마음으로 저승을 향해 가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284).

소설은 노예제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재기억함에 있어 백인들에 의해 미화되거나 포장된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과거의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귀를 닫고 입을 막아버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모두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노예제의 상흔을 완전히 극복하고 구성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한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가해자인 백인이나 피해자인 흑인 모두 과거 청산에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한 상생의 시대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3. 결론

모리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위상의 고찰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빌러비드』를 구상하고 서술하였다. 그는 미국사회에 있어서 흑인 노예문제를 묻어두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회복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흑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작품『빌러비드』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노예제도가 노예해방 이후 미국문학의 주제로 등장했지만 노예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빌러비드』에서 모리슨은 노예제에 대한 폭 넓은 역사적 설명을 시도하는 대신에 흑인들이 경험한 평등에 대한 압제가 그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흑인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법적인 자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노예제로 인해 황폐화된 그들의 영혼은 과거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하여 '자유로워지는 것과 자유로워진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일'임을 보여준다.

모리슨은 작품속의 인물들 서로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통해 노예제의 비극을 드러내보였다. 서로의 기억들이 그 당시 고통의 재연으로 인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길 반복하며 조금씩 확장되고 마침내 조각조각의 기억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그녀의 접근은 갑자기 맞닥뜨려지는 불편하고 끔찍한 진실에 대해 독자들이 받을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빌러비드』에서 '망각'은 '장막,' 혹은 '종말'을 의미한다(Bowers 60). 노예제로 인해 왜곡된 감성의 예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빌러비드』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소설 전반부에서 노예제로 인해 죽은 흑인들로 과거와의 접촉이 끊어진 상태로 등장한다. 이들을 통해 모리슨은 노예제를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흑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일부분, 즉 내면세계를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리슨은 잊혀진 흑인 노예들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여 '국가적 기억 상실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상흔으로 남아 어딘가에 존재한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현재 삶에 어떤 형태로든

dCollection @ chosun

지 나타난다. 이러한 과거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상처들, 상흔들을 위로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한 발전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모리슨은 노예제로 희생당한 흑인 6000만 명에게 『빌러비드』를 헌정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받는 이들이라 부르리라”는 로마서 9장 25절의 성경구절처럼,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흑인노예들에게 자신들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며,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현실과 환상을 적절히 조화시켜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해 가야 하는지를 모색케 한다.

dCollection @ chosun

WORKS CITED

Primary Sources

Morrison, Toni. *Beloved*. New York: Vintage, 1987.
토니 모리슨. 『빌러비드』. 최인자 역. 파주: 문학동네, 2014.

Secondary Sources

김길수. 「차이의 수용과 공존,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미국소설』 12.1 (2005): 163-95.
_____.「탈식민주의적 글쓰기: Morrison의 *Beloved*와 Hurston의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연구」. 박사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4.
김지원. 「미국소설 아버지로서의 호손의 위상」. 『호손과 미국소설 연구』 12.1 (2006): 29-51.
김춘진. 「『알렙』과 『픽션집』: 혼돈의 시대와 환상문학의 논리」. 『외국문학』 52 (1997): 12-33.
김희경. 「『Beloved』에 나타난 재기억과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 연구」. 석사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노예제」. 『동아세계대백과사전』7 서울: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1982: 451-53.
모건, 에드먼드. 『미국의 노예제도 & 미국의 자유』. 황혜성, 서석봉, 신문수 역. 서울: 비봉출판사, 1997.
박귀숙. 「『빌러비드』의 상흔의 치유와 내러티브 전략」. 『현대영미어문학』 27.1 (2009): 19-37.

dCollection @ chosun

박순정. 「소유적 관계가 자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빌러비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4.2 (2008): 21-39.

_____.「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탈식민적 정체성 추구」. 『현대영어영문학』 56.4 (2012): 87-106.

손영미. 「시간, 기억, 역사: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영어영문학연구』 26.2 (2000): 217-34.

신진범. 「원혼의 해원: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와 황석영의 『손님』」. 『영어 영문학 연구』 51.4 (2009): 279-95.

이명호. 「사자의 요구: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읽기」. 『영미문학연구』 4 (2003): 139-74.

이승은. 「『빌러비드』: 다시 쓰는 흑인 역사와 저항 담론」. 『京畿專門大學論文集』 29 (2001): 435-50.

전경희.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신 노예 서사로서의 전략」. 석사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전용갑. 「과학소설과 환상문학의 비교연구」. 『외국문학연구』 49 (2013): 483-512.

최재구. 「빌러비드: 기억과 망각의 딜레마」.『比較文化硏究(Center for cross culture studies)』 4 (2000): 167-93.

Bowers, Susan. "*Beloved* and the New Apocalypse." *The Journal of Ethics Studies* 18.1 (Spring 1990): 59-78.

Carter, Susan B.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 New York: Cambridge UP, 2006.

Lytle, John R. "Fantastic Literature and Historical Discourse in the French Romantic Period."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2007.

Peach, Linden. *Toni Morrison*. London: Macmillan, 1995.

dCollection @ chosun